

# 現代科學과 文學

## Modern Science and Literature

金 利 哲\*

1930年代에 美國에서 發生하여 30여년 동안 美國 批評界를 풍미하던 소위 New Criticism은 60年代末 Crowe Ransom의 死亡과 함께 終末을 告했다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이다. 그러나 一部 學者들이나 文學批評家들은 New Criticism운동이 끝난 것이 아니고 post-modernism 혹은 post-post-modernism 등으로 名稱만 탈바꿈했을 뿐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報告드리고자 하는 것은 New Criticism에 대한 是非나 功勞가 아니고, 왜 新批評이란 表現이 20世紀 즉 우리 時代에 탄생했느냐라는 問題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名稱을 Ransom의 批評書 New Criticism의 表題를 그대로 따서 한 Group의 批評家들을 特徵짓는데서 비롯되었다고 간단히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解答은 問題의 根源을 찌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Ransom이 1941年 New Criticism이란 表題의 책을 왜 내었느냐?는 疑問에는 옳은 大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Ransom이 New Criticism이라고 이름을 붙여, T.S.Eliot를 비롯하여 數名의 英美批評家들을 그 책에서 批評했을 때 그는 그들이 新批評家라는 이름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음에 틀림 없다. 그렇다면 어떤 意味로 그들은 新批評家다웠던 것이었을까 하는 또하나의 疑問이 생긴다.

이 疑問에 大답하기 위해서는 그 책에 說明된 그 批評家들의 “새로움” 自體를 檢討해야하겠지만 그 角度는 이 報告의 主眼點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新批評家들을 大게된 時代的 背景, 즉 20世紀의 時代思潮를 특히, 科學思想을 밑에 깔고 New Criticism을 檢討해 보려고 한다.

물론, 20世紀라는 우리들이 살고있는 時代의 特性을 여기서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本人은 그러한 全面的인 檢討를 大하려고하는 大단한 야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단지 20世紀가 거의 끝나는 지금, 특별히 19세기의 特性과 比較할 때 우리들이 사는 이 現代의 特質의 한두가지가 뚜렷이 나타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世紀는 人間의 關心이 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物質世界로 집중된 時代였다. 그 物質世界는 人間까지도 한개의 物質로 간주하고 어떤 種類의 人間의 利益과

\* 前 人文大學 英語英文學科 教授

福祉를 增進시키기 위하여 存在하는 것으로 믿었다.

그 結果는 資本主義의 급속한 發達로 이어졌고 人間의 物質的 生活을 改善하는 「進歩의 時代」를 구가하는 時代였다. 즉, 肉體적 欲望을 基로 하는 資本主義와 帝國主義가 급속도로 번영한 時代이며, 그 基本的 信念下에서는 物質은 언제나 人間의 利益때문에 있는 것이고 物質은 不變하는 것이어서 황금은 언제나 黃金이라는(19世紀의 眞理) 생각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時代였다. 다시말하자면 19世紀란 物質의 萬古不變性을 믿은 唯物主義 時代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20世紀에 들어오면 사정은 달라진다. 19世紀 人間이 萬古不變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物質은 결코 不變의 것이 아니었다. 그 단적인 예는 Uranium(原子)이 붕괴하여 Radium이 되고 최후로는 아연이 되는 현상일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Radium이 알파선, 베타선 및 감마선을 방출하고 붕괴한다는 현상은 이미 19세기말(1898年) 유명한 퀴리부처가 發見한 것이다. 이 發見의 重大한 意義는 그때부터 80年을 지난 오늘날 겨우 一般人에게도 理解되기 시작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原子(Atom)는 히랍어로(A=mot, tom=Cut)더 쪼갤 수 없는 의미지만 이 物質의 最小粒子(Atom)는 (최소한도) 히랍時代 부터 19世紀末까지 그 이상은 쪼갤 수 없는 것으로 믿어 왔다. 그것이 人間의 歷史 이래 처음으로 發見된 것이다. 결국 原子라는 말이 적어도 科學的으로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 뿐이 아니다. 일단 原子가 分割된다는 것이 알려지자 그의 內部的 探險이 수많은 原子物理學者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그 결과 적어도 19世紀 人間으로서는 도저히 꿈도 못꾸던 「극미의 세계」가 展開되어 왔다. 原子는 그 이상 쪼갤 수 없는 最小입자 이기는커녕, 마치 태양과 比較할 수 있는 거대한 構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위에 그 구조는 끊임없이 變化하고 있다. 原子核의 주위를 도는 電子는 결국 電子라는 物質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일종의 Energy 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原子核 그것도 양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복잡한 회전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것도 電子와 같이 粒子(物質)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것을 근자에 알게 되었다. 더욱 더 원자의 궤도도 끊임없이 變化하고 있으며, 또한 原子核의 構造도 우주선과 인위적 중성자의 힘에 의하여 어떤 方向으로도 變化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水素核이 4個 結合하여 Herium核을 형성하는 프로세스는 태양 중에서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또한 공기중의 질소는 중성자가 한개 더하여 방사성 탄소(Carbon 14)가 되는 과정도 우리들의 대기중에서 상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아오면 금세기의 초두이래 人間의 物質觀이 얼마만큼 커다란 變化를 가져왔는가를 알게 된다. 물론 萬物流轉이라는 東洋의 世界觀에 의해 자라온 우리들로서는 이러한 物質觀의 變化가 어떤 精神的 타격을 美國人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주었고, 또한 주고 있는가를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神(God)에 의하여 不變의 것으로 주어진 物質世界가 그들의 발밑에서 붕괴되어, 그들의 信念을 근거에서 흔들고, 소위 「不安의 世界」를 만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유명한 Einstein의 「物質=Energy」法則도 같은 정도로 서구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要因이 되었다. 그 法則은 이미 너무나 유명한 것이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E=mc^2$ 이다. 여기서 E는 energy, m은 物質의 質量(그램), C는 빛의 속도로 매초  $3 \times 10^{10} cm$  항수(Constant)이다. 즉 공식으로 계산하면 1그램의 物質은 대체로  $1.0^{21}$  erg의 Energy가 된다. 이것을 마력으로 換算하면 백만마력의 전동기를 33時間 움직일 수 있는 무서운 힘이 된다. 이처럼 物質이 energy로 轉換되고 또한 Energy가 物質로 바뀔 수 있다는 Einstein의 法則은 오늘날 이미 핵폭탄의 폭발이나 cosmotron(입자가속기), Bwatron 라는 가속장치(초당 400萬回)가 그것의 정확성을 증명했다. 더욱 흥미있는 것은 최근의 研究에 의하면 위에서 말한 수십억 전자 Volt에 달하는 強力한 가속장치 밑에서는 그 Energy에서 반물질(Anti-matter)이 創造되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 반물질은 우리들이 종래 알고 있는 物質과 電磁的으로 전혀 반대되는 性質을 가진 반전자(Positron)(양성자), 반양자(Anti-proton), 반중성자(Anti-neutron) 등으로 되어있는 물질이다. 이 반물질은 우리가 알고있는 물질과 충돌했을 때 양자는 순간으로 서로 섬멸하고 뒤에는 공허한 Energy가 방출된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있는 은하계 우주 밖의 어느 곳에 이와 같은 반물질로 구성된 우주가 존재한다고 推測한다. (실제 폭탄에 利用研究) 거기다 소립자의 世界가 確率(Probability)에 의한 法則에서만 支配되는 世界라는 것은 이미 파동역할설에 의하여 證明된 것이다. 이것과 같이 우주를 포함한 거시세계도 또한 確率의 法則에 의하여 支配되는 것은 자세한 說明이 필요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우주가 반물질로 되어있는 우주와 충돌하여 일체가 무로 돌아가는 確率도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20세기 탐구의 성과는 만일 극미세계의 현상을 그대로 우리들의 거시세계의 현상의 Analogy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면 저 東洋에서 옛부터 이야기 되어온 「일체의 사물은 무에서 생겨나 무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옳바르다는 것을 극미 세계의 자연현상이 증명해 주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情報社會의 일처리 能力을 말하기 위하여 Computer를 例로 들겠다.

美國 國防省에서 使用하는 Super-Computer의 경우 그 構成이 I.C. 20만개, 處理能力은 1초간에 3億2千萬語, 8千萬分の 1초에 한단어를 처리하며, 책으로는 300페이지 2千5百권分, 記憶能力은 3百億語이다. 여기에 Super-Super 電算器가 研究中이다. 이런 時代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좀 길다랗게 20世紀 원자물리학의 發展의 歷史를 찾아왔지만 그렇다면 이것이 文學(批評이 되겠지만)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精密化의 사실이 원자물리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세기말 tiamin(B) 發見以來 계속되는 Vitamin 研究나 거기에 병행하여 행해지는 Hormon이나 내분비선 연구가 인간의 生理에 關한 研究를 눈에 뜨이게 심화해서 그전에 生物學이나 生理學이라고 불리던 분야

도 지금은 Bio-chemistry, Bio-dynamics, Bio-sterdyng, Bio-physics, D.N.A 등으로 세분화되어 왔다. 여러분은 의심을 가질 것이다. 사실 本人이 지금까지 설명해온 사실들은 문제의 핵심을 찌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위에서 같이 어이들러서한 설명으로서도 아직 우리가 사는 20세기라는 시대의 특성을 밝히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本人은 아직 지금의 물리학자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問題의 하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그것은 유명한 하이젠베르크의 「不確定性 原理」(the uncertainty principle) 이다.

이 原理를 매우 간단히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즉, 觀測者가 한개의 전자의 위치와 속력을 동시에 觀測하려 한다면 觀測者는 그 자체의 존재에 影響을 받아 전자의 위치를 결정하면 그 속력을 觀測할 수 없고, 또한 속력을 결정하면 그 위치를 모르게 되는 Paradox에 빠지게 된다. 이것을 일상적인 예로 든다면 선생이 학생의 품행조사를 하려고 그 학생을 觀察하기 시작한 순간 그 학생의 행동이 일상과 다른 행동이 되어진다는 Paradox에 많이 닮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문학비평의 面에 비유한다면 하나의 作品의 Ambiguity 를 파고 들거나 그의 상징적 의미와 Archetype 를 상세히 分析하고 있는 동안 그 作品이 갖고 있는 文學的 價値를 놓치게 되는(예를 들면 Empson 경우) 것이다.

이 하이젠베르크 原理는 한편에서는 人間의 知識의 유한성을 증명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의 事象이 생기는 것은 19世紀의 因果率에 支配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確率問題에 지나지 않는다는 새로운 생각이다. 물론 Plank의 양자설을 기초로 한 극미세계의 法則을 그대로 우리가 사는 거시세계에 갖다 맞추는 것에는 여러가지 異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사람의 생각에는 이미 19世紀의인 인과론이나 決定論을 버리고 確率的(統計學的)인 생각이 많이 들어온 것은 단 保險會社나 중간매체의 세계만 아닐 것이다. 미리 말한다면 소위 「新批評」의 초기 때 Vernon Lee(본명 Violet Paget)가 여러가지 作品에 포함된 품사의 比率를 統計的으로 산출하여, 이것을 그래프로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작품 그 자체(급작자자신)의 특성을 규정하려는 시도 등, 그 方法의 適否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틀림없이 確率世界의 概念을 벌써 文學에 들여온 예라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說明으로 앞서 말한 20世紀가 나타내는 精神의 特性을 몇가지로 整理할 수 있다. 첫째로 旺盛한 探求精神을 들 수 있다. 앞서 말한대로 종래는 分離할 수 없다고 믿어온 原子를 더욱 작게 分離하여 그 속에서 새로운 宇宙를 發見한 것은 劃期的인 일이라 하겠다. 둘째로 研究의 細分化和 精密化(深化)라고 할 수 있다. 이 自然科學 研究의 細分化和 精密化가 人文科學 全分野에 至大한 影響을 끼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文學批評의 性質을 한번 檢討할 必要가 있다. 즉 우리는 「批評」이라는 것을 어떻게 理解하고 있는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批評이란 「옳고 그름을 갈라 말함. 결

점 장점을 들어 평함」이라고 나와 있다. 만일 이 정의를 글자 그대로라고 한다면, 「판단을 내리고 評價한다」는 뜻이 되겠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理解하고 있는 批評의 뜻이 될 것인가? 이처럼 批評이 「判斷이나 評價」만을 내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獨善의인 사람이 할 일이지 文學批評家가 할 일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批評이 최소한도 文學의 一部門으로서 客觀的으로 存在하기 위해서도 하나의 作品을 읽고 그것을 優良可 또는 50점짜리 80점짜리 등으로 採點(判斷, 評價)하는 것만이 批評의 役割이라고 한다면 批評은 文學의 한 Genre로서의 存在理由를 喪失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批評이란 위에서 말한 「判斷하고 評價한다」라는 것 외에 어떤 要件이 添附되어야 할 것인가?

히랍어에서 批評의 뜻은 「判斷·評價」보다는 分割·分離 卽 分析한다로 되어 있다. (Kri-nien = to separate, to distinguish, to judge) Aristoteles가 Poetika를 썼을 때 그의 目的이 判斷이나 評價를 내리기 보다는 倉作 內容의 分析에 重點을 두었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의 定說로 되어 있다. 사실 우리말의 「判斷」과 「評價」를 재음미해보아도 이 말들이 갖는 前提의 뜻은 「分析해서 判斷한다」 또는 「分析해서 評價한다」라는 頭腦的 process를 暗示하고 있으며 또 그런 前提를 無視하고는 이 말을 使用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批評이란 우선 첫째로 批評의 對象을 分析하고 그 分析의 結果를 基礎로 하여 判斷하고 評價한다는 最小限度 2段階의 過程을 取해야 한다는 것을 否定할 수 없다. 事實 新批評家의 모두가 이 2段階 過程의 論理性和 妥當性을 認定하고 있다.

예를 들어 Eliot가 「批評이란 感受性(effective)의 展開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作品이 가지는 諸要素를 批評家의 感受性에 의하여 分析하고 摘出해내는 것이 批評家의 役割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 分明하다. 이것을 逆으로 말하면 批評이 가지는 分析한 후 判斷·評價한다는 2段階의 process는 文學批評이 人文科學의 一部分으로써 成立할 수 있는 絶對的 必要條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自然科學, 人文科學 어느 편을 따질 것 없이 科學의 全分野에 걸쳐 科學이란 「아는 것」이며, 「아는 것」이란 現象을 觀測하거나 分析하여 거기에 一定한 法則을 세워가는(人文科學에서는 判斷·評價) 것이 基本的 原則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 제기의 하나로서 果然 文學批評에서는 現代物理學이 極微의 世界의 秘密을 解明한 것과 같은 分析의 細分化和 精密化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다. 다시 말하자면, 20世紀 精神의 特性의 하나로서 본인이 앞서 말한 探求의 細分化, 精密化가 文學批評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나인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本人의 “그렇다”라는 가정과는 反對되는 回答을 얻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우선 Northrop Frye의 冊 Anatomy of Criticism 序文(p.15~16)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Frye가 論하는 바를 간단히 要約하자면 「오늘날의 文學評論은 自然科學의 發達

된 現象과 比較할 때 극히 幼稚한 歸納의 段階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物理學의 例를 들어 「物理學은 初步的 歸納의 段階에서 飛躍하여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現象을 法則에 의하여 說明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그의 素朴한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物理學이라고하는 歸納的 學問은 自然現象으로부터 歸納시켜 法則을 만들고 이렇게 이루어진 法則群에서 그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交次的 法則을 또 만드는 段階를 反復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뜨겁다, 차다라는 現象에서 溫度라는 法則이 만들어지고 溫度와 빛의 性質에서 量子說이 태어나는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發展할 때 보다 높은 法則은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저차원의 現象을 說明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Frye는 物理學과 文學評論을 自然科學과 完全히 同一 範疇에 넣고 物理學이 눈부신 發達을 이루는데 반하여 文學評論은 原始的 狀態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말도 본인은 옳은 말이라고 同意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文學評論이 今世紀에 들어와 急激히 發展된 Semantics와 Freud와 Yung의 心理分析, 文化人類學과 社會心理學 등의 法則과 方法을 導入하여 그 分析에 깊은 細分化和 精密化를 가져온 現象을 살펴보면 그 理由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Frye는 文學評論의 現象이 극히 原始的인 狀態에 놓여 있다고 主張해 놓고서도 本論에서는 Yung의 Archetype의 原理를 導入하여 모든 훌륭한 文學作品은 一種의 神話(myth)라는 法則을 세워놓고 이를 증명하려고 努力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方法은 Richard Chase가 그의 著書 The Quest for Myth(1949)에서 “Myth is only art”(神話만이 藝術이다)라고 한 主張보다는 조잡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文學評論의 幼稚한 狀況을 指摘한 후 마치 自己만이 그런 現狀에서 벗어나 매우 높은 普遍的 法則을 樹立할 수 있는 段階에 서있는 사람인 것과 같은 印象을 주려고한 것은 하나의 오만이거나 弱點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Frye의 所論中 또하나의 重大한 缺陷은 物理學이나 天文學 혹은 生物學 등의 自然科學과 文學評論이라는 人文科學의 一分野가 同一한 自然科學方法이 適用될 수 있다는 素朴한 思考法이다. 왜냐하면 物理學과 文學評論은 그 取扱하는 素材가 根本적으로 다르며 또한 窮極의 目的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좀 더 부연하자면 物理學은 自然現象의 모든 것을 包括적으로 解釋할 수 있는 普遍的 法則을 樹立하려고 量的인 世界를 다루는 學問이요, 반면에 文學評論은 勿論 物理學에서 쓰는 方法을 使用할 수는 있지만 한 文學作品을 보다 깊게 그리고 妥當性이 있는 解釋을 試圖하는 즉 그 分析의 結果는 作品의 鑑賞과 價値評價, 곧 質的世界를 다루는 學問이며 逆으로 모든 作品을 支配하는 一定한 法則을 세울 수 없는 學問이기 때문이다.

이상 Frye의 所論의 몇가지를 指摘했지만 그런 虛點에도 불구하고 그의 Archetypal Criticism과 이 책의 3장에서 끌어낸 「神話는 窮極적으로 文學形式을 組織化하는 構成的 原

理를 뜻한다」(p.136)라는 결론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뒤로 미루고 20世紀에 알맞는表現이라 생각한다. 환언하면 그의 이 冊은 그가 말한「素朴한 歸納的 段階」에 있는 文學評論狀況의 하나의 評書로서 쓰여진 것이지만 그 속에는 20世紀的 研究의 細分化和 精密化가 具體的으로 나타나 있다.

이 科學的 方法이 評論에 導入된 具體的 現象을 우리는 Frye가 내세운 Archetypal Criticism에서 우선 볼 수 있다. 앞서도 말한 바와같이 이 Archetype라는 概念은 Yung의 것으로써 쉽게 풀이하면 人間이 極히 原始時代에 反復的으로 經驗한 Image 혹은 Symbol로써 오늘의 人間은 無意識속에 그것들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意識的으로는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單 Image 내지는 Symbol로서 換置하고 있는 소위 Universal unconsciousness(보편적무의식)이다. 직접적인 예를 들면 春夏秋冬 거기에 따르는 祭典, 十字架, 石像神, 그리스도, 聖母 마리아, 佛陀 등이 그런 Archetype들이다. 이 Yung의 업적은 요즘 제법 理解되고 있지만 Maud Bodkin은 1934년에 벌써 이 Yung의 心理學的 分析方法을 文學作品의 分析에 應用하여 Archetypal Patterns in Poetry(1934)란 先驅的 研究를 發表했다. 勿論 이 著書는 出版當時 極小數의 新批評家들의 注目을 받았을 뿐이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Yung이 創始한 Archetype의 概念, 또 그런 概念을 이끌어내는 分析의 方法이 文學批評에서 크게 注目을 받고, 이 方法이 바로 文學作品의 本質을 發掘하는 唯一한 道具라고 생각하기에까지 이르렀다(특히 Frye). 이런 생각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자면 많은 研究와 時間이 必要할 것이며 또한 오늘이 報告의 主眼點도 아니다. 다만 여기서 明確히 말할 수 있는 것은 人間의 深層心理를 分析하는 Yung의 方法이 19世紀에서는 상상조차할 수 없었을 정도로 오늘의 文學批評을 深化하고 精密化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Yung 뿐만 아니고 Freud의 Psycho-Analysis(心理分析)나 또 James Fraser의 The Golden Bough (1907~15 (17권))등이 人類學의 未知의 分野를 넓고 깊게 파헤침으로서 文學作品의 生産과 批評面에 많은 寄與를 하고 있다는 것도 周知의 사실이다.

William Van Conner가 지적한 것처럼 20世紀는 이미 批評의 時代(Age of Criticism, 1952)가 되었고, 그가 그 冊의 마지막 章에서 指摘한「오늘날의 批評의 特性은 分析的 批評」(Analytical Criticism)이라는 말은 지금에와서 볼 때 今昔之感을 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까지 考察한바로 分明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批評이 細分化되고 深化된 것은 그 自體의 發展에서 보다는 오히려 人間에 聯關된 여러가지의 學問, 예를 들어 心理學, 人類學, 社會學, Semantics, 言語法學 등의 人文科學의 發達에 依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學問에 의거한 批評들은 그 根據를 둔 學問에 따라 여러가지로 細分化되어 가지가지의 批評을 낳게 되었다. Stanley Hyman은 이 여러가지의 批評을 그의 著書 The

Armed Vision에서 12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요즘에 流行되는 批評의 種類를 간단히 추려보아도 약 20가지 정도가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1) 歷史的 批評, 2) 傳統的 批評, 3) 道德的(倫理的) 批評, 4) 文化的 批評, 5) 絕對的 批評, 6) 相對的 批評, 7) 印象批評, 8) 解釋的 批評, 9) 審美的 批評, 10) 社會的 批評, 11) 社會主義 批評, 12) 心理的 批評, 13) 心理主義的 批評, 14) 原型批評, 15) 神話的 批評, 16) 比較文學的 批評, 17) 感性的 批評, 18) 認識的 批評 등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름들만을 어떤 定義나 說明없이 나열한다는 것은 아무런 意味가 없다. 다만, 報告者가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위와 같은 批評의 細分化의 結果, 批評의 基本的 問題에 있어서 一種의 混亂狀態가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物理學에 있어서 Einstein의 統一場理論을 놓고 科學者間에 混亂을 빚고 있는 것과 비슷한 狀況이라고 할 수 있다.

왜 나하면 文學評論의 細分化는 결코 一次的인 것이 아니고, 詩(文學作品)의 Ontology(存在論, 本體論)에서 시작하여, 作品의 機能, 構成의 問題・價値부여의 困難性 또한 價値基準에 관한 問題, 批評機能의 多面化 또는 批評方法의 多樣化 등에 따라오는 批評狀態의 混亂 등 극히 多元化된 狀況이어서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解決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現代科學의 發展은 文學評論의 科學化에도 이바지하였지만 역시 混亂을 일으키는데도 한몫을 한 셈이다.

그러면 여기서 소위 新批評家라고 부를 수 있는 몇사람을 예로 들어 文學批評의 混亂相을 간단히 설명해 보려 한다.

우선 詩의 Ontology 問題와 거기에 관한 對立된 見解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Ontology에 관해서는 Ransom이 그의 「New Criticism」(1941)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즉 詩는 그 自體로서 獨特한 本體를 가지고 있다라는 立張이다. 詩는 Ontology를 갖고 있기 때문에 散文과 科學的 記述과는 다르며 따라서 이 점에 詩의 形而上學的인 區別이 있게 된다고 말한다. Ransom은 더 부연하기를, 詩는 論理的 Structure(意味)와 非論理的 詩的意味인 Texture의 두가지로 이룩된 것이며, 그 두가지는 서로 irrelevancy를 가지면서도 이 두가지가 詩全體의 意味로 作用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첫째의 論理的 意味의 Structure는 꼭 自然科學에 있어서의 客體와 法則과의 關係에 一致하지만 둘째의 非論理的 意味의 Texture는 예컨대 Metaphor나 Rhythm, 또는 Irony 등 서로 맞지 않는 細部로 되어 있다. 따라서 Ransom에 의하면 詩는 Structure와 Texture라는 二元論이 된다.

그러나 이 二元論은 그의 弟子인 Cleanth Brooks의 著書 The Well Wrought Urn(1947)에서 서술한 詩의 一元論과는 날카롭게 對立되고 있다. 그는 이 冊의 結論으로서 -“the fullest realization of the symbolic structure that is the poem”(p.266)(詩는 象徵的 構成의 完全한 實現이다)이라고 一元論的 定義를 내렸다.



여기에 대하여 Ransom은 그해의 Kenyon Review에 글을 실어, 新批評은 이미 詩의 解釋에 있어서는 言語學的 革命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詩의 理論的 構成에 關係서는 無關心하여 어떤 意味에서는 스스로 混亂을 自招하고 있다. 특히 Brooks는 本質的으로 不正確한 여러가지 Paradox를 그의 一元的 詩의 概念으로 統一하려는 부질없는 努力에 의하여 新批評의 混亂을 더욱 助長하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自己立場의 變호와 擴大化 등으로 現代批評은 混亂을 거듭하고 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자면 근자의 神話的 批評과 比較文學의 批評의 對立이다. 神話批評은 Northrop Frye를 例로 들었을 때 약간 설명한 바이지만 要컨데 카시러(Ernest Cassirer) 주위에서 發達한 神話批評이 主張하는 것은, 「모든 藝術은 象徴的 形式이며 神話이다」라는 것이다. 그들의 主張에 따르면 文學作品을 小説이나 詩나 劇 등의 Genre로 區分하는 것은 窮極的으로 無意味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比較文學을 專門으로 하는 一派의 批評家들은 批評의 基準으로서의 Genre나 기타의 規範(norm)이 없어진다면 比較文學이 成立될 수 없다고 하여 完강히 文學의 基準을 Genre 등에 두려고 한다. 이의 端的인 例를 Rene Wellek & Austin Warren의 Theory of Literature(1949)에서 볼 수 있다. 이런 完固한 Genre說의 主張者들에 대하여 어느 批評家는 「만일 文學의 Genre를 無限히 擴大시킨다면 끝에 가서는 文學作品 하나하나 그 自體가 自己의 Genre를 主張하게 될 거라고 비웃고 있다. 여하튼 이들 둘사이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없이 날로 쌓이고 있는 중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新批評의 混亂狀이나 新批評自體에 대한 비평도 있어 왔다. Lavid Daiches는 그의 Literary Essays(1956)에서 新批評家들은 logical pureness를 求하는 나머지 一種의 偏狹성과 固執을 가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편협성을 非科學的 獨斷論으로 變호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는 一種의 puritanism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그 puritanism을 기반으로써 거의 모든 新批評家가 믿고 있는 것은 「詩는 有機的 總體이다」라는 信念이다. 그들이 믿는 바에 의하면 詩는 有機的 存在이기 때문에 作品은 作家와 分離시켜 그 自體가 하나의 有機體로 취급되어야 한다. 勿論, 그런 理論이 극히 제한된 몇개의 詩에 한해서 論해될 때는 그들의 主張도 一理가 없지 않으나, Aristoteles의 詩論은 기실 詩論만이 아니고 創作論이라고 보는 L. J. Potts의 Aristotle on the Art of Fiction(1953)과 같은 포괄的 立場에서 본다면 新批評家들이 主張하는 「詩의 有機體說」이 얼마나 視野가 좁은 偏狹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新批評의 편협성에 대한 批判은 Harry Levin(ed.) Perspective of Criticism(1950)이나, 所謂 Chicago Circle의 R. S. Crane(ed.) Critics and Criticism(1952) 등에

서 더욱 찾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이 報告와는 直接的 關係가 없기 때문에 卽 有機的 關係가 없기 때문에 卽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 結論的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앞서의 반박이 되겠지만) 20世紀의 科學發達, 特히 物理學의 發達이 極微의 世界를 發見하게 되자 人文科學 그중에서도 論理를 必要로 하는 批評分野에서 影響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 結果로 批評分野의 한 流派로서 소위 New Criticism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 新批評이 自然科學의 方法을 모방함으로써 批評方法의 細分化和 精密化에는 一端 成功했으나 너무 지나쳐 Valery가 말한 「위대한 藝術은 周圍에 沈默을 낳는다」는 그 心情的으로나 把握할 수 있는 그 “沈默”까지도 機械的으로 또는 圖式的으로 裁斷하려는 遇를 犯해, 이제와서는 「New Criticism as a Dead Horse」란 批判을 받기에 이르른 것이다.